

청혼하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조건으로 '주방 없는 집'을 요구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주방이 없는 집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가정과 가족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독신자'가 증가하고, '무자녀' 생활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2,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결혼과 직장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30%를 훨씬 웃돌았다. 또 출산과 직장 중에서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대답도 30% 가까이 나왔다고 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연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연의 고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어느 고리보다도 연결될 수 있으며, 살아 있는 유기적 관계를 갖게 된다.

우리의 생명 속에는 앞서 간 수많은 조상들의 생명이 축적되어 있으며, 결혼을 통하여 앞으로 도 무수한 생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이어 온 생명의 고리, 인



불자 세상보기

문윤정 수필가

결혼, 생명과 인연의 고리

연의 고리가 점점 실득력과 힘을 잃어가고 있다. 결혼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 교육정책의 끊임없는 실패로 아이 낳기가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산모와 육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기혼여성의

출산기피가 아니라,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만 있다면 가사노동이 수반되는 결혼은 사양하겠다는, 또 힘들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신 애완동물들을 키우면 된다는 어느 미혼여성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의 밑바닥에는 책임의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자녀 없는 부부생활이나 독신생활은 책임질 부양가족이 없어서 출가분하기도 하겠

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과연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가져다줄는지 의문스럽다.

부처님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 겪어야 하는 다섯 가지 고통이 있다고 쌍웃다니까야에서 설하였다. 나이가 어릴 때에 시집가서 친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 월경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고 분만을 한다는 것, 여성들은 남자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꼽았다.

부처님은 또한 여성에게는 다섯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하였다. 용모의 힘, 재산의 힘, 친족의 힘, 자식의 힘, 덕성의 힘이다. 임신과 분만이 여성에게 고통이기는 하지만, '자식을 두었다는 것'이 '여성적 힘'이라고 설하신 것에 우리는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혼을 통하여 생명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무수한 인연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면서도 사회와 인류로 확대되어 갈 수 있는 공공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는 여성들이 결혼과 직장생활을 마음 놓고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정책모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화엄회 일승회 등의 움직임이 바빠졌고, 또 새롭게 '미래를 여는 승가회'라는 정책모임이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모임들이 종회의 창출과 종단내에서의 권력의 창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조계종 내부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실이다.

문제는 그 두 축 가운데 어떤 축이 중심축이 되고 있는가이다. 아무리 출세간의 법을 지향하는 불교 종단이라 하더라도 일단 세속 속에 종단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일정한 정치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이 모임들이 이를 그대로 종회의 창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권력 창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계종 종단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힘들다.

건강한 정책모임을 위해

오직 권력창출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의 파급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불자는 물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불교의 위신을 추락시킨 예도 있었다. 이와 정치적 행태를 펼 수 밖에 없다면, 정말 세간의 모범이 될 만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출세간법에 바탕한 세간법의 운용은 저렇구나!' 하는 찬탄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임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있었던 지난 총무원장 선거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있을 동국대 이사장 선출, 하반기 제14대 중앙종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정책모임들의 본질과 지향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모임들은 종회의 창출을 축으로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정책모임이 되어야 한다. 종도의 뜻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수립된 정책을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통해 차츰 인맥과 파당의 색채를 씻어 가야 한다는 말이다. 권력창출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스님들의 모임이라면 결국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하는 천만불자들의 엄한 질책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를 묻는 초심자의 자세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노력 보이기를 촉구한다.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양극화

"이이 되거나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손해되는 것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투고 분쟁이 없어진다." <열반경>

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극화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세계경제포럼이 펴낸 '세계 62개국 정치·경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각국 정상들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양극화' (16%)가 2위에 올랐다. 1위로 꼽힌 '경제성장' (17%)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격차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핵심에는 갈등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분부 갈등이나 노(勞)-노(勞) 갈등, 상대적 박탈감, 범죄 유발 등은 양극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노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제시한 양극화 해법에 대해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결국 세금 올리자는 말 아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혁신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라며 힘을 북돋우는 이들도 있다.

부처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은 썩은 밥을 만들고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은 모래로 밥을 만든다"고 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불만과 다툼이 아닌 원만하게 풀어나가려는 지혜와 노력이다.

■박봉영(새누리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 진입로 포장

입지여건 고려가 우선

무조건 사찰 진입로 포장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각 사찰마다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찰 진입로가 일주문까지 라면 그곳까지는 포장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찰 진입로가 일주문 안쪽까지라면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는 경내로 들어선 지역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땅을 밟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아스팔트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진입로에 사하촌이 있는지도 포장의 관건이 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수목사와 같은 경우는 일주문까지 진입로가 짧고 주변에 상가로 구성된 포장된 것이 좋다. 하지만 절반반 포장돼 있는 의성 고운사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가와 사하촌이 없고 숲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포장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사찰이 지니고 있는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각 사찰도 상황이 변하고 있다. 진입로 주변이 상가와 사하촌으로 밀집돼 있으면 포장을 하고, 숲으로 조성돼 있으면 생태환경 보호 차원에서 포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접근성 높여야 사찰기능 원활

자연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찰 진입로는 포장이 안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사찰 규모도 커지고 대중 살림도 늘어나 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들이 많다. 그래서 사찰 진입로 포장을 불가피하다.

불자들이도 참배하러 오기 위해서는 진입로 조차 포장이 안되면 불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상업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 사찰 시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절에 와서 시설물들을 아끼고 주변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사찰 진입로 포장의 유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사찰의 삶도 이제는 하나의 현실이고 생활의 일부다. 무조건식으로 보호만 한다는 명목으로 생활의 편리를 무시한 채 그대로 놔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봉(충주 흥천사 주지)

보행자 위한 배려도 필요

사찰 진입로의 포장에 반대한다. 우리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과연 흙을 밟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지 않다. 사실상 아스팔트 포장에 범람하는 이시대엔 유일하게 산에 올라가보면 흙을 밟을 수 있을 정도다. 이

런 점에서 사찰 진입로까지 포장한다면 정말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닐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

사찰 진입로 포장은 보행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차가 다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장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차를 타고 사찰 앞마당까지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찰 입구에서부터 흙을 밟으며 한발짝 한발짝 부처님 전에 가까이 가는 것도 불자들의 참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사찰 주변의 환경 보호 차원에서 산길을 포장하면 야생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차단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백승호(경북 구미시)

'생명존중' 차원서 자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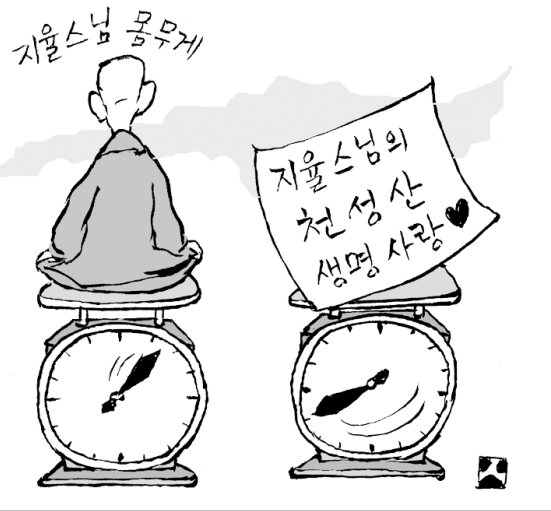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생명존중과 환경보호를 강조하셨다. 맞닿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생명들의 이기심때문에 포장과 건설을 일삼는다면 불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불편하더라도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자연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자연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과 공생하는 사찰의 모습이 좀더 신심있는 불자들을 양산해내는 참 수행도량의 진면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중성(대불청 회원)

'연대' 민명

심민섭



진제대선사의 법문집 신판 禪 백문백답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정상 무너지고 벽력같은 일 할에 천만 갈등 흔적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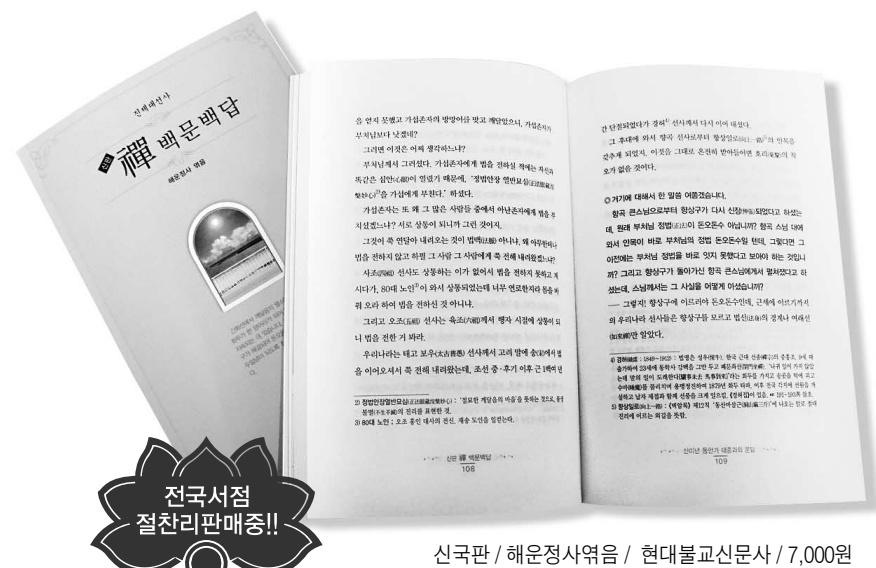
현재 조계종 원로위원과 동화사, 해운정사 조실을 맡아 수많은 운수남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진제스님의 법문집 신(禪) 백문백답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동화사 기초선원 좌담법문(1997년)'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2005년)' 등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던 스님의 법문과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대중들에게 한 치의 막힘없이 답해주는 스님의 법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평소 일반대중에게 걸림돌이 되고 화두가 되었던 질문과 스님의 답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속담(인천 융화선원 선원장) 남진제'로 불릴 만큼 당대 최고의 선사(禪師)로 존경받는 진제스님의 신판 신(禪) 백문백답!

이제 온라인 여시아문과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서점 질찬리판매중!!

신국판 / 해운정사역음 / 현대불교신문사 / 7,000원